

# 건강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 20-30대 미혼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중훈<sup>1</sup>, 김예순<sup>2\*</sup>

<sup>1</sup>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원, <sup>2</sup>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사

## Factors affecting perception of marriage needs including health related variables : In 20-30s unmarried workers

Jong-Hoon Moon<sup>1</sup>, Ye-Soon Kim<sup>2\*</sup>

<sup>1</sup>Researcher, Dept. of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Research, N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sup>2</sup>Officer, Dept. of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Research, N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요 약 본 연구는 20-30대 미혼남녀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으로 건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2,534명의 대상자 중 현재 근로자이며, 20-30대 미혼 남녀 904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종속변수는 결혼 필요성 인식여부이고,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나이, 성별, 키, 몸무게, 학력, 본인의 월 평균 소득,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었고, 건강관련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 규칙적인 운동 여부 및 삶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통계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20대 남성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 20대 여성에서는 학력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월 소득이 적을수록 결혼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이었다. 30대 여성에서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결혼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30대 미혼남녀 근로자의 결혼인식에 건강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건강, 결혼, 근로자, 미혼, 청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ffecting factors on perception of marriage needs in 20-30s unmarried workers. This study used raw data from the survey on the actu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youth of 2016. Among the 2,534 subjects, 904 unmarried workers in their 20s and 30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were marriage needs, and independent variables were age, sex, height, weight,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parents' economic level, and health-related variables were self-rate health, stress, regular exercise, and life satisfaction include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results, there were no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 of marriage needs in 20s men, and Education was a predictor in 20s women. In 30s men, the more regular exercise, the less the monthly income,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marriage needs was. In the 30s women, the better the self-rate health,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marriage needs w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ealth may affect the marriage perception of 30s unmarried workers.

Key Words : Health, Marriage, Occupational Groups, Single person, Youth adult

\*Corresponding Author : Ye-Soon Kim(yesoon@korea.kr)

Received April 23, 2019  
Accepted July 20, 2019

Revised June 1, 2019  
Published July 28,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로 인구고령화[1]와 OECD 국가 중 마지막 순위에 해당하는 출산율 문제가 앞으로 큰 난제로 생각된다[2].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청년실업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강구해야 하는 정부의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3]. 통계청 결과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급격한 사회변화, 교육과 생활수준에 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결혼 가치관 변화와 혼인율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4].

일반적으로 혼인율 감소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결혼 가능성이 달라지는 즉,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설명되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높은 학력과 소득, 안정된 고용은 결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여성은 인적 자본이 높을수록 결혼 가능성이 낮았다[5]. 국내 연구의 경우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는데, Yoo와 Hyun[6]의 연구에서 1995년, 2000년, 2005년 세 시점의 자료 분석을 통해 경제적 자원이 여성의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였고, 결혼적령기 가치규범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혼 인식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양극화 경향과 높은 주택가격이나 결혼식 비용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이유일 것이다[7].

청년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결혼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되며[3-7], 하락하고 있는 혼인율을 본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경제적 자원 확대 방안이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청년의 결혼 의향, 인식 등의 결혼 필요성 인식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미혼 남녀의 결혼 의도에 관한 연구[8-14], 젊은 층의 가족건강이나 가치관과 결혼 의향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15-17], 결혼 의향과 삶 만족 사이의 연관성 연구[18] 등이 있었다. 이 연구들에서 결혼 의향이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도출되었는데, 본인과 부모의 학력 및 경제적 자원, 그리고 가족건강이나 가족 가치관, 삶 만족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6-18].

1948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의 정의를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규정하였다[19]. 건

강을 생존 추구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넓은 의미로 정의한 것이다. 건강을 설명하는 능력은 운동능력과 같은 신체적 역량뿐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대처가 포함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관적 건강을 보편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20], 주관적 건강의 정의는 개인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평가이다[21].

주관적 건강의 중요성을 알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높게 나타났으며[22], 노년기 연구뿐만 아니라 젊은 층 대상 연구에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과 연관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임이 보고되었다[23,24]. 또한 주관적 건강은 보건학 분야에서 조사연구 내용의 일반적인 항목에 주로 포함되고, 국외의 경우 사회경제학적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민감한 평가로 알려져 있다[20-25]. 주관적 건강은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및 다양한 생활양식과 관련된 변수와 상관성이 증명되었고[25],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예측요인으로 밝혀져[26] 최근 주목할 만한 건강관련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 의향에 대한 인식은 추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금까지 건강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여 주관적 건강과 결혼 필요성 인식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려진 바 없었으므로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해 탐색하여 건강관련 변수가 결혼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 미혼남녀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의 영향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을 포함하여 관련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연구문제이다.

첫째, 20대 남성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20대 여성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30대 남성의 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30대 여성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원시자

료를 이용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조사의 목적은 청년 실업 문제와 주거나 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 빈곤이나 부채 문제, 청년들의 사회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조사는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청년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대상 및 표본규모는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이하 청년 2,700명 내외이며, 표본추출틀은 조사구 명부를 이용하였고, 표본추출방식은 1차는 추출 조사구 각 층에서 확률비례계통추출법, 2차는 각 표본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법으로 가구를 추출하였다.

표본배분방식은 층화비례배분이다. 조사방법은 개별 방문 면접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이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공통사항으로 일반사항, 결혼 및 자녀관, 교육관련 인식, 일자리 관련 인식, 주거 및 가구취득 관련 인식, 건강 및 스트레스, 행복과 가치관, 인간관계 및 사회참여 등이 있으며, 19-39세 청년층은 대학생활, 취업준비 및 직업 훈련, 경제활동 상태 등이 있다.

연구자는 회귀모형에 투입할 적합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2,534명의 대상자 중 현재 20-30대 미혼 근로자를 선택하였고, 선택한 대상자 중 몸무게와 월 소득 질문에서 각 1건, 총 2건의 무응답/모름을 제외한 성인남녀 904명을 분석하였다.

## 2.2 변수 설정

### 2.2.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결혼 필요성 인식 여부이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응답은 '①만 □□세 부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로 받을 수 있도록 제시되어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하기 위하여 이분형 변수로 변환하였는데, 1번은 '결혼 필요', 2번과 3번 문항을 묶어 '결혼 불필요'로 설정하였다.

### 2.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이, 성별, 키, 몸무게, 학력, 본인의 월 평균 소득,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이었고, 건강관련 변수가 주관적 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 규칙적인 운동 여부로 설정되었으며, 삶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나이는 20대, 30대로 구분되어있고, 키(cm)와 몸무게(kg), 월 평균 소득(만원)은 비율척도로 표현되어 있다. 이 비율척도 3가지 변수는 변수설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부모님 경제력에 대한 질문은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이며, 응답은 1번 '최하'부터 10번 '최상'까지 10점 척도로 만들어진 네모박스에 채점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하기 위하여 성별, 학력, 부모님 경제력 이 3가지 변수를 재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자=1, 여자=0,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0, 대학 이상=1, 부모님 경제력은 '낮다'와 '높다'로 구분하였는데, 1-5번=0, 6-10번=1로 설정하였다.

건강관련 변수는 주관적 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 규칙적인 운동으로 구성하였는데, 주관적 건강에 대한 질문은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받는다(①전혀 건강하지 않다, ②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건강한 편이다, ⑤매우 건강하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은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이며,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받는다(①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별로 느끼지 않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느끼는 편이다, ⑤매우 많이 느낀다). 규칙적인 운동여부에 대한 질문은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이며, 추가설명 내용은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이다. 응답은 '예'와 '아니오'로 받는다. 주관적 건강과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이분형 변수로 다시 코딩하였는데, 주관적 건강은 '보통 또는 나쁨', ' 좋음'으로 구분하였는데, 1-3번=0, 4-5번=1로 코딩하였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보통 또는 느끼지 않음', '스트레스 있음'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1-3번=0, 4-5번=1로 코딩하였다. 규칙적인 운동 여부는 '안한다'=0, '한다'=1로 코딩하였다.

삶 만족에 대한 질문은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이며,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받는다(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만족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한다, ⑤매우 만족한다). 회귀모형에 투입하기 위하여 삶 만족에 대한 응답을 재설정하였다. '보통 또는 불만족'과 '만족'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1-3번=0, 4-5번=1로 코딩하였다.

###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으며,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관련 변수, 삶 만족은 빈도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각 연령 및 성별 집단별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변수, 삶 만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변수, 삶 만족은 Table 1과 같다. 응답한 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나이는 20대가 597명(66.0%)으로 30대보다 비중이 높았고 성별은 남자가 535명(59.2%)으로 여자보다 많았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가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월 평균소득은 196.59±88.96만원, 부모님의 경제력은 '높다'가 56.7%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은 '건강한 편'이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약간 느끼는 편'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68.4%가 '안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삶 만족은 '보통'이 4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life satisfaction in subjects (N=904)

		N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s)	20s	597	66.0
		30s	307	34.0
	Gender	Male	535	59.2
		Female	369	40.8
	Height (cm) <sup>1)</sup>		170.06±7.53	
	Weight (kg) <sup>1)</sup>		64.35±11.58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3	0.3
		High school	305	33.7
		College	203	22.5
		University	377	41.7
≥ Graduate school		16	1.8	
Monthly income (10000 won) <sup>1)</sup>		196.59±88.96		
Mean±SD		5.70±1.45		
Parent economic level	Low	392	43.3	
	High	514	56.7	
Self-rate health	Very bad	5	0.6	
	Bad	33	3.6	
	Middle	186	20.6	
	Good	524	58.0	
	Very good	156	17.2	
Subjective stress	Do not feel	2	0.2	
	Middle	58	6.4	
	Little bit	238	26.3	
	Very much	522	57.8	
	Very much	84	9.3	
Regular exercise	Do	286	31.6	
	Do not	618	68.4	
	Not at all	8	0.9	
Life satisfaction	Not satisfied	134	14.8	
	Middle	414	45.8	
	Satisfied	341	37.7	
	Very satisfied	7	0.8	

<sup>1)</sup>Mean±SD

Table 2. Factors affecting marriage needs in 20s men workers (N=324)

		N	Odd ratio (CI 95 %)	p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ight (cm)	324	1.022 (0.964-1.082)	.466	
	Weight (kg)	324	1.011 (0.976-1.047)	.547	
	Education level	≤ High school(ref)	109	1	
		≥ College	215	0.766 (0.470-1.249)	.285
	Monthly income (10000 won)	324	0.999 (0.996-1.001)	.424	
	Parent economic level	Low(ref)	141	1	
High		183	0.772 (0.482-1.236)	.281	
Health related variables	Self-rate health	Not good(ref)	70	1	
		Good	254	1.687 (0.960-2.965)	.069
	Subjective stress	Not feeling(ref)	256	1	
		Feeling	68	1.064 (0.532-2.130)	.860
	Regular exercise	Do not(ref)	196	1	
		Do	128	0.853 (0.532-1.366)	.507
Life satisfaction	Not satisfied(ref)	195	1		
	Satisfied	129	1.454 (0.894-2.365)	.132	

ref: reference

Table 3. Factors affecting marriage needs in 20s women workers (N=324)

		N	Odd ratio (CI 95 %)	p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ight (cm)	273	0.998 (0.935-1.065)	.945	
	Weight (kg)	273	0.990 (0.940-1.043)	.703	
	Education level	≤ High school(ref)	76	1	
		≥ College	197	0.445 (0.251-0.789)	.006
	Monthly income (10000 won)	273	0.999 (0.995-1.003)	.633	
	Parent economic level	Low(ref)	109	1	
High		164	1.573 (0.933-2.653)	.089	
Health related variables	Self-rate health	Not good(ref)	71	1	
		Good	202	1.183 (0.658-2.124)	.574
	Subjective stress	Not feeling(ref)	223	1	
		Feeling	50	0.660 (0.316-1.377)	.268
	Regular exercise	Do not(ref)	222	1	
		Do	51	1.173 (0.624-2.205)	.620
Life satisfaction	Not satisfied(ref)	157	1		
	Satisfied	116	0.865 (0.517-1.449)	.582	

ref: reference

### 3.2 20대 남성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20대 남성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2와 같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 3.3 20대 여성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20대 여성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20대 여성 근로자는 학력이

‘대학 이상’인 여성은 ‘고등학교 이하’인 여성보다 결혼 필요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OR=0.445, 95% CI 0.251-0.789, p=.006). 그 외 나머지 변수는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지 못했다.

### 3.4 30대 남성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30대 남성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0대 남성은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

Table 4. Factors affecting marriage needs in 30s men workers (N=324)

		N	Odd ratio (CI 95 %)	p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ight (cm)	211	1.021 (0.941-1.108)	.617	
	Weight (kg)	211	0.991 (0.946-1.039)	.716	
	Education level	≤ High school(ref)	80	1	
		≥ College	131	1.087 (0.597-1.979)	.785
	Monthly income (10000 won)	211	0.995 (0.991-0.999)	.015	
	Parent economic level	Low(ref)	94	1	
High		117	1.090 (0.601-1.978)	.776	
Health related variables	Self-rate health	Not good(ref)	55	1	
		Good	156	0.724 (0.367-1.431)	.353
	Subjective stress	Not feeling(ref)	157	1	
		Feeling	54	1.312 (0.587-2.936)	.508
	Regular exercise	Do not(ref)	131	1	
		Do	80	1.906 (1.038-3.499)	.037
Life satisfaction	Not satisfied(ref)	146	1		
	Satisfied	65	1.169 (0.591-2.309)	.654	

ref: reference

Table 5. Factors affecting marriage needs in 30s women workers (N=324)

		N	Odd ratio (CI 95 %)	p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ight (cm)	96	1.068 (0.913-1.249)	.413	
	Weight (kg)	96	0.943 (0.839-1.060)	.326	
	Education level	≤ High school(ref)	43	1	
		≥ College	53	0.968 (0.329-2.852)	.954
	Monthly income (10000 won)	96	1.004 (0.998-1.011)	.173	
	Parent economic level	Low(ref)	46	1	
High		50	0.708 (0.251-1.997)	.514	
Health related variables	Self-rate health	Not good(ref)	28	1	
		Good	68	10.345 (2.333-45.875)	.002
	Subjective stress	Not feeling(ref)	76	1	
		Feeling	20	3.471 (0.688-17.511)	.132
	Regular exercise	Do not(ref)	69	1	
		Do	27	0.306 (0.090-1.037)	.057
Life satisfaction	Not satisfied(ref)	58	1		
	Satisfied	38	1.278 (0.425-3.840)	.662	

ref: reference

록(OR=0.995, 95% CI 0.991-0.999, p=.015),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OR=1.906, 95% CI 1.038-3.499, p=.037)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나머지 변수는 요인이 아니었다.

### 3.5 30대 여성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

30대 여성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30대 여성 근로자는 주관적 건강이 ' 좋음'인 사람이 '보통 또는 좋지 않음'을 선택한 사람보다 결혼 필요성에 긍정적이었다(OR=10.345,

95% CI 2.333-45.875, p=.002).

## 4. 논의

본 연구는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904명의 20-30대 미혼남녀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으로 건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저자는 연구 결과를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합의하였다.

첫째, 20대 남성의 결혼 필요성 인식에 영향 요인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관적 건강의 유의수준이 모형에 투입된 변수 중 유의수준에 가장 가까웠다. 주관적 건강 '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확률이 약 1.69배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필요성 인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Yoo와 Hyun[6]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Oh와 Lim[9]은 학력과 취업과 같은 인적자본이 낮은 여성의 경우 결혼 이른 결혼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밝혔다. 이전 두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Park[27]은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에 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비혼 이유가 대학 졸업 후 불확실한 취업 및 단기간의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밝혔고 Lee와 Kim[28]의 연구에서 고학력 전문직 여성일수록 경제력, 잠재력, 학력 등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배우자를 원했던 반면, 저학력 여성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이전 두 질적 연구의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둘째, 30대 남성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을수록, 월 소득이 적을수록 결혼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이었다. 20대 남성에서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30대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현재 30대가 결혼 적령기에 가깝기 때문에 투입된 변수의 특성이 20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 Seo[8]는 25-35세 미혼 남녀의 결혼의지에 영향 요인으로 미혼 남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님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결혼의지가 높게 나타났고,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은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혀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나, 남성의 임금이 변수로 포함되는 인적 자본이 많아질수록 결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Oh와 Lim[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30대 남성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결혼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결과가 나타나는 배경적 이유는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사회적 능력, 자기관리 능력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29, 30]. Nam 등[29]의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낮았고, 사회활동과 관련한 변수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긍정적인 심리나 사회활동에 높은 참여는 교육수준과 임금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결혼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Jung[30]은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과 소득 사이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과적 관계를 탐색한 결과, 두 변수는 양방향으로 서로 상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가지 주의하여 해석해야 할 부분은 본 연구가 횡단연구이므로 규칙적인 운동이 결혼 인식과 인과적 관계가 있다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30대 여성의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결혼 필요성 인식에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과 성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결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해본다. 건강은 전체 생애주기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예측인자이며, 건강지표와 성 생활 및 활동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25]. Lindau와 Gavrilo[25]의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주관적 건강이 ' 좋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성 생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수명과 성 생활 기대수명 (sexually active life expectancy)은 주관적 건강과 정적인 연관성을 나타냈다. 30대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가깝고 이 시기에 내분비계의 변화로 20대보다 성 기능이나 성욕이 증가하게 된다. 결혼 적령기와 성욕과 성 활동 및 나이 사이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확인한 이전의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31,32]. 또한, 주관적 건강이 결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던 이유가 성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질[33], 삶의 만족도[34], 주관적 행복감[35] 등이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결혼 적령기가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적인 삶의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36], 이러한 정서는 높은 삶의 질이나 삶 만족, 행복감과 연관이 깊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강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한점은 결혼 인식과 관련한 다른 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샘플의 수가 적었다는 점과 건강과 관련한 변수를 주관적 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 규칙적인 운동 3가지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횡단적 단면 설계이므로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건강과 결혼 인식 사이의 관련성을 언급한 첫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건강과 결혼 인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는 것을 강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0-30대 미혼남녀 근로자의 결혼 필요성

인식 영향 요인으로 건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남성이 20대에는 결혼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요인이 없었고 30대가 되면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월 소득이 적을수록 결혼 필요성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이 20대에는 학력이 낮은 사람이 결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되면 주관적 건강이 좋을수록 결혼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 근로자의 건강수준이 결혼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추후 결혼과 결혼 인식에 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growth rat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I2).
- [2]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OECD 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7\\_OECD&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7_OECD&conn_path=I2).
- [3] O. K. Yoon & E. G. Lee. (2018). Current policies for the at-risk youth and the tasks in the demographic cliff era.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31(3), 321-345.  
DOI : 10.4275/KSLIS.2008.42.1.127
- [4] S. S. Lee. (2006).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2), 95-140.
- [5] F. K. Goldscheider & L. J. Waite. (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1), 91-109.
- [6] H. J. Yoo & S. M. Hyun. (2010). The Effects of Economic Resources on Marriage-Delaying.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1), 75-101.
- [7] S. Y. Lee. (2011). A Study on Changes in Cost of Housing at Marriage by Age Group in Terms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4), 205-216.
- [8] J. Y. Seo. (2018). Study on Unmarried Men and Women's Marriage willingness. *Journal of Korean Cultural Studies*, 69, 371-393.
- [9] J. H. Oh & J. J. Lim. (2016). The Timing and Possibility of Marriage among Single Men an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0(5), 203-245.
- [10] S. K. Koh & S. Y. Auh. (2013). An effect of the financial resources on the willingness to marriage formation among the never married in their 30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1), 63-79.
- [11] C. S. Kim. (2006).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1), 57-70.
- [12] J. B. Kim. (2013). The Study Of Moderating Effects Upo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Journal of Social Science*, 39(1), 1-24.  
DOI : 10.15820/khjs.2013.39.1.008
- [13] S. Y. Im. & J. H. Park. (2014). The Effect of Family Values and the Resource Factors Provided by Parents on Marriage Intention among Never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3), 177-193.
- [14] H. M. Park & G. Y. Jeon. (2018). The study about variables influencing emotional, normative, and functional marriage intentions of un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2(4), 53-80.  
DOI : 10.21321/jfr.22.4.53
- [15] K. H. Shon, N. H. Kim, & E. S. Lee. (2019). The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 719-728.  
DOI : 10.21742/AJMAHS.2019.01.72
- [16] M. J. Chin & H. E. Chung. (2010).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3), 31-51.
- [17] A. R. Won & J. Y. Park. (2016). Impact of Family Strengths,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Views on Marriage on Unmarried Couples' Marriage Intention. *Family and Family Therapy*, 24(1), 145-166.  
DOI : 10.21479/kaft.2016.24.1.145
- [18] S. A. Cho & G. S. Yoo. (2018). The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Misogyny Perceived by 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Marriage Intention. *Family and Culture*, 30(1), 86-119.  
DOI : 10.21478/family.30.1.201803.004
- [19] F. P. Grad. (2002).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0, 981-984.
- [20] Y. H. Choi. (2016). Is subjective health reliable as a proxy variable for true health? a comparison of self-rated health and self-assessed change in health among middle-aged and older South Korea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4), 431-459.  
DOI : 10.15709/hswr.2016.36.4.431
- [21] H. J. Breidablik, E. Meland, & S. Lydersen. (2008). Self-rated health in adolescence: a multifactorial composite.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6(1), 12-20.  
DOI : 10.1177/1403494807085306.
- [22] F. Cavallo, P. Dalmasso, & V. Ottova-Jordan. (2015).



Trends in self-rated health in European and North-American adolescents from 2002 to 2010 in 32 countries.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5, 13-15. DOI : 10.1093/eurpub/ckx011.

[23] B. Piko. (2000). Health-related predictors of self-perceived health in a student population: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Community Health*, 25(2), 125-137.

[24] M. Lachytova, Z. Katreniakova, P. Mikula, M. Jendrichovsky & I. Nagyova. (2017). Associations between self-rated health, mental health problems and physical inactivity among urban adolescents.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7(6), 984-989. DOI : 10.1093/eurpub/ckx051.

[25] S. T. Lindau & N. Gavrilova. (2010). Sex, health, and years of sexually active life gained due to good health: evidence from two US population based cross sectional surveys of ageing. *BMJ*, 340, c810. DOI : 10.1136/bmj.c810.

[26] S. B. Shin.(2017).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HSS*, 21, 8(4), 1043-1067.

[27] K. N. Park. (2011). The Reality and Choice of Instable Employment of Single Women in their 20's-30's. *Journal of Korean Women 's Studies*, 27(1), 1-39.

[28] J. K. Lee & B. H. Kim. (2015). The Prospect and Meaning of Marriage among Unmarried Women in Korea: Heterogeneity across Educational Attainment Groups. *Journal of Korean Women 's Studies*, 31(4), 41-85.

[29] I. S. Nam, H. S Young, D. W. Hyun, A. Y. Choi & S. R. Yeum. (2014). Effect of regular exercise on depress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4), 5-23.

[30] E. H. Jung. (2018).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in Korean society - focused on a test of social causation and selection hypothesis -.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6(2), 150-178. DOI : 10.24301/MHSW.2018.06.46.2.150

[31] O. Kontula & Haavio-Mannila, E. (2009). The impact of aging on human sexual activity and sexual desire. *Journal of Sex Research*, 46(1), 46-56. DOI : 10.1080/00224490802624414.

[32] F. S. Christopher & S. Sprecher. (2000). Sexuality in marriage, dating, and other relationship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99-1017.

[33] H. S. Kim & S. S. Kim. (2017). A Converged Study about Influences of Job Stress, Job Security, Depression, Family Bond, Subjective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Married Middle-Aged Ma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101-114. DOI : 10.15207/JKCS.2017.8.3.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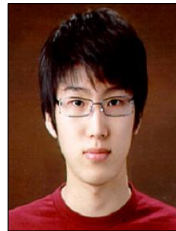
[34] C. J. Chang. (2017). Structural Relationship of Subjective Health, Ability to Work, Participation on Economic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05-310. DOI : 10.15207/JKCS.2017.8.10.305

[35] Y. O. Ha & Y. M. Park. (2017).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Sleep Quality and Subjective Happiness on the Wellness Lifestyle among Adul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359-367. DOI : 10.15207/JKCS.2017.8.12.359

[36] G. J. Park & S. G. Kang. (2019). The effect of Double-income couples' marriag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4), 247-255.

문 중 훈(Jong-Hoon Moon)

[성취원]



- 2017년 2월 : 가천대학교 보건의대학원  
작업치료학(석사)
- 2018년 2월 ~ 현재 : 가천대학교 일  
반대학원 물리치료학 박사과정
- 2018년 5월 ~ 현재 : 국립재활원 재  
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 관심분야 : 건강증진, 건강관리

· E-Mail : garnett231@naver.com / jhmoon1@korea.kr

김 예 순(Ye-Soon Kim)

[성취원]



- 2008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의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  
학원 보건학(박사)
- 2010년 10월 ~ 현재 : 국립재활원 재  
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보건의료서비스,  
재활정책

· E-Mail : yesoon@korea.kr